주요개념 : 어린이 화상사고, 어머니의 화상에 대한 예방, 태도, 지식

어린이 화상사고 유형과 어머니의 예방, 태도, 지식에 대한 실태조사*

한 정 석**·김 동 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화상은 일상생활에서 모든 연령층이 흔히 경험하는 안전사고 유형중의 하나다. 특히, 그 중에서 어린이 화상사고는 귀한 생명을 잃거나 화상상해 후 남게 되는 신체적 상해, 외관상의 후유증, 운동 장애로 신체상, 자존감을 손상 받게 되어 일생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또한, 완전히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의 피부는 성장과 발달이 끝나는 시기까지 수십차례의 피부 재건술을 해야 하고 또,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신체적인 고통과 어린이의 성장 발달장애나 지연, 퇴행 등이 오게 되고(Whaley & Wong, 1993) 그와 함께 큰 경제적 손실도 가져오게 된다.

의료보험연합회 통계자료(199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9000여명의 많은 어린이들이 화상사고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0-9세 어린이 안전사고 전체 상해자중에 화상사고가 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에서 어린이가 안전사고 상해를 사망한 요인 중에서 화상사고가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 화상사고의 요인은 부모나 보호자의 안전의식 결여와 어린이의 성장 발달의 특징 때문에 발생되게 되는데 어린이가 아직 인지 및 지각 발달이 미숙하여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린이의 화상사고는 부모의 화상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어린이의 주위환경에 산재하여 있는 위험요인 제거에 의해 충분히 감소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보호자가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화상사고가 발생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Gray, 1980 ; Martinez, 1992 ; 한국소비자 보호원, 1993) 사고발생의 원인을 분석하면 90% 이상이 예방 가능하다고(Glik 등, 1991) 하여 어린이 화상사고에 대한 가정내의 적극적인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가정내의 화상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일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 화상사고 상해에 심각성과 예방을 강조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어린이 화상사고 유형과 어머니의 화상에 대한 예방, 태도, 지식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어린이 화상사고의 유형을 파악하고 어린이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화상예방에 대한 태도와 지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1996년 연세대학교 교수-학생 공동연구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연세대학교 교수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1) 어린이의 화상사고 유형을 파악한다.
2) 어머니의 화상에 대한 예방, 태도, 지식 정도를 알아 본다.

Ⅱ. 문헌 고찰

1. 어린이 화상사고 실태와 그 영향

어린이 화상사고 실태와 그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어린이 화상사고 발생의 원인은 어린이 성장과 발달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어린아이들은 기기 시작하면서 부터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지면서 새로운 것에 쉽게 몰입하게 된다. 자신에게 위험하고 해로운 물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모방적인 놀이를 즐겨서 텔레비전과 비디오에서 본 장면을 그대로 분별없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사고를 당하게 된다.

Jay 등(1977)에 의하면 화상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연령층을 보면 4세 이하가 75%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이 가정에서 뜨거운 액체에 의해 열탕화상을 입은 경우로 입원기간은 1일 내지 207일간이고 특히 피부이식을 할 경우에는 10일 내지 35일간의 입원이 더 필요했다고 하였다. Halperin 등(1983)의 연구에서는 1-4세의 사고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화상사고가 제 1순위였으며, Thomas 등(1984)은 화상상해가 교통사고 다음으로 주요한 사망의 원인이며 1-4세 사이의 사고는 가정에서 발생되었다고 보고하였다. Gray(1988)는 화상을 입은 어린이 15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2세 미만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화상사고발생율이 2배로 높았으며 장소는 87%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대상자의 35%가 가전제품과 목욕물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중에 50%가 피부이식을 했다고 하였다. Martinez(1992)의 연구에서는 어린이 화상의 56%가 1-2세 미만에서 였으며 사고의 매체는 생활용품과 목욕물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어린이가 화상을 입은 당시 대부분의 어머니가 피곤한 상태였으며 수면부족 등으로 심신의 피로감을 느끼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였다고 보고하였다. Eadie 등(1995)은 화상 어린이 치료를 한 성형외과에서 화상원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1956년, 1984년, 1991년에 실시한 결과, 화상사고의 주된 원인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생활용품, 커피포트, 주전자 또는 목욕물에 의한 화상이었으며 발생빈도가 85%에서 1991년에는 91%로 증가되었고 사고발생 연령이 계속 낮아졌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보고를 살펴보면 한상훈 등(1986)은 화상으로 입원한 14세 이하의 48%가 열탕화상이였다고 하였고 박정한 등(1988)은 D시 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분석에서 화상 어린이가 54.6%이고 연령은 3-8세였으며 그 중의 85.2%가 열탕화상이라고 하였고 정재현(1991)은 화상환자의 36.5%가 10세 이하로 이중에 85.4%가 열탕화상이라고 보고하였다. 1993년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원 보고에 의하면 어린이 화상사고가 가정에서 89.8% 발생하였고 그 중 열탕화상이 91.5%였으며 화상당시 보호자가 주변에 있었던 경우가 88.6%나 되었다(한국 소비자 보호원, 1993). 한정석(1992)은 병원방문 상해환자 유형별 분석에서 화상환자의 50%가 12세 미만이었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어린이 화상사고는 어른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고 발생장소는 가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 유형을 살펴보면 불에 의한 화상보다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열탕화상이 많았었다. 또한 어린이 화상사고의 경우 어린이의 피부가 성장과 성숙과정에 있고 매우 얇기 때문에 화상정도나 부위가 어른의 화상상태와 같을지라도 어린이에게는 매우 치명적이어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Thomas 등, 1984 ; Dersheweitz, 1984 ; Gray, 1988).

현대 최첨단의 의학기술과 약물이 발달하였어도 화상사고 후 피부흉터는 정상적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장기간의 치료과정에서 고통, 지루함, 병원 입원이나 치료로 인하여 학교 혹은 직장을 쉬어야 하며 흉터로 인한 신체상의 변화는 자존심과 자아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우울, 장래희망에 대한 상실감, 인간관계,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소외감, 오랜 기간의 치료과정으로 가족, 친구의 지지가 감소되어지고 이로 인해 대처능력이 저하되는 등 화상사고는 복합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Bernstein, 1992). Martinez(1992)는 특히, 어린이 화상사고는 화상정도와 부위에 따라서 상처치유의 성공여부는 치료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치료기간이 수술 및 재활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업이 중단되며 또래와의 사귐이나 학교생활의 적응이 어려워지게 되어 사회성 발달에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어린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화상사고에 대하여 아직 우리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거나 교육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 화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기 위해 어린이 화상사고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어린이 화상사고 유형과 어린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화상예방에 대한 태도와 지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 시내 5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하여 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어머니전수에서 질문지 응답을 모두한 어머니 393명중에서 화상사고를 경험한 어머니 92명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어린이 화상사고 유형과 화상에 관한 어머니의 지식과 태도 조사 측정 도구를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간호학 교수 2인과 협의하였으며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과 일치하는 영유아 부모 20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고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가족과 자녀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그리고 자녀의 성별과 연령, 주거 형태, 가족 형태를 도구에 포함시켰으며 화상사고 발생 유형은 문헌 고찰을 통해 어린이에게 가장 빈번한 화상 사고 유형인 뜨거운 물, 가열된 물건, 화염, 증기 사고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도구에는 가정에서 어린이 사고발생 위험 물건에의 노출과 관련된 화상사고 2문항, 부모의 화상사고와 관련된 평소 예방습관이 9문항, 자녀에게 실시한 화상 사고 예방 교육 7문항으로 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화상사고에 관련된 평소 습관에 관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63, 자녀에게 실시한 화상 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71, 위험 물건 노출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69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시내 5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중인 어린이의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1997년 4월 15일부터 22일 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1997년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동일한 기준에 해당하는 어린이 부모 393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화상 사고 유형 및 화상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으로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화상사고 유형 실태 조사와 화상 사고에 관한 지식과 태도는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주거 형태, 가족 형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에 대해 각각 조사하였으며 자녀수, 성별과 연령을 조사하였다〈표 1〉.

일반적인 특성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거 형태는 아파트 및 공동 주택이 264명(67.2%)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주택이 116명(29.5%)이었다.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273명(69.5%), 대가족이 63명(16.0%)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은 31세에서 40세가 331명(18.0%)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35세가 51명(13.0%)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 연령 역시 31세에서 40세가 313명(79.6%)이었고 이 중 33세가 63명(16%)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 정도는 대졸 이상이 아버지가 312명(79.4%), 어머니가 266명(67.7%)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아버지는 회사원이 189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78명(18.8%), 교사 23명(5.9%)순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218명(55.5%)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58명(14.8%), 회사원 51명(13%)순이었다. 자녀수는 하나인 경우가 81명(20.6%), 둘이 274명(69.7%), 셋이 34명(8.7%), 넷이 1명(0.2%) 였다. 자녀 연령은 1세에서 18세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7세 미만은 606명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93

항목	구분	인수	백분율
주거 형태	아파트, 공동주택	264	67.2
	일반 주택	116	29.5
	기타	13	3.3
가족 형태	핵가족	273	69.5
	확대 가족	63	16.0
	기타	57	14.5
아버지 연령	30세 이하	12	3.1
	31세~40세	331	84.2
	41세 이상	42	10.7
	무응답	8	2.0
아버지 교육정도	대졸이상	312	79.4
	고졸	67	17.0
	중졸이하	3	0.8
	무응답	11	2.8
아버지 직업	회사원	189	48.1
	자영업	74	18.8
	교사	23	5.9
	공무원	21	5.3
	의사	16	4.1
	기타	70	7.8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62	15.8
	31세~40세	313	79.6
	41세 이상	14	3.6
	무응답	4	1.0
어머니 교육정도	대졸이상	266	67.7
	고졸	110	28.0
	중졸이하	12	3.0
	무응답	5	1.3
어머니 직업	주부	218	55.5
	교사	58	14.8
	회사원	51	13.0
	공무원	17	4.3
	기타	49	12.5
자녀수	1	81	20.6
	2	274	69.7
	3	34	8.7
	4	1	0.2
	무응답	3	0.8

2. 화상 사고 유형

사고 주체는 자녀가 경험한 직접 경험과 이웃이나 친척이 경험한 간접 경험을 모두 조사하였고, 사고 장소 및 원인을 함께 조사하였다. 사고 장소에 대한 답은 광범위하고 일관성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화상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전체 393명중 92명(23.3%)이었다.

화상을 경험한 경우 뜨거운 물에 의한 경우가 51예(55.4%), 가열된 물건 29예(31.5%), 화염 7예(7.6%), 증기 4예(4.3%), 식초 1예(1.1%) 순이었다〈표 2〉.

〈표 2〉 화상 사고 유형 및 원인별 빈도수 n=92

유 형	발생건수	백분율(%)
뜨거운 물	51	55.5
가열된 물건	29	31.5
화 염	7	7.6
증 기	4	4.3
기 타	1	1.1

위의 뜨거운 물, 즉 열탕화상이 전체의 55.4%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의 보고(박정한, 1988 ; 정재현, 1991 ; 한상훈, 1986)에서 화상사고 중 열탕 화상 발생률이 높은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머니 예방교육 프로그램에서 특히, 열탕화상에 대한 교육을 강조해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어머니의 화상 사고 예방과 관련된 태도 및 지식

1) 화상 사고 위험 요인의 노출 정도

가정내에서 흔히 사용하고 물건 중 영유아가 다루었을 때 위험하여 화상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 영유아의 손에 닿거나 눈에 띄는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3-1〉. 다리미의 경우 159명(40.5%)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노출되어 있었으며 성냥이나 라이터의 경우 91명(23.2%)이 자녀에게 노출되어 있었다.

〈표 3-1〉 화상사고 위험 요인의 노출 정도 n=393

항 목	구 분	인수	백분율
다리미 사용 후	노출되어 있다	159	40.5
	노출되어 있지 않다	234	59.5
성냥/라이터	노출되어 있다	91	23.2
	노출되어 있지 않다	302	76.8

2) 부모의 화상 사고 예방과 관련된 평소 습관

부모가 취하는 화상사고와 관련된 평소 습관에 대해 파악가기 위해 모두 16문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

음〈표 3-2〉와 같다.

가스렌지에서 불을 켠 상태에서 자리를 떠난다에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가 48.6%가 되었고, 아이를 안고 뜨거운 음식이나 차를 마신다에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가 23.7%가 되었으며, 아이의 잠옷을 방염성 천으로 고르지 않는 경우'가 52.9%나 되었으며 특히, 한 개의 콘덴서에 여러개의 가전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72.2%로 화재의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또한, 소화기 수명연한과 작동 여부의 수시 확인도 77.1%가 하고 있지 않아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이 미비함을 파악 할 수 있었다. 그 외의 평소 습관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20% 미만이지만 어린이 화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요소가 발견되므로 어머니에게 화상사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화상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철저히 생활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강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표 3-2〉 화상 사고 예방과 관련된 평소 습관 n=393

항 목	구 분	인수	백분율
가스렌지에 불을 켠	자주 그렇다	22	5.6
상태에서 자리를 떠난다	가끔 그렇다	169	43.0
	전혀 그렇지 않다	181	46.1
	무응답	21	5.3
한 개의 콘덴서에	자주 그렇다	74	18.8
여러개의 가전제품을	가끔 그렇다	210	53.4
연결하여 사용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90	22.9
	무응답	19	4.8
식탁에 늘어진	자주 그렇다	59	15.0
식탁보를 사용한다	가끔 그렇다	51	13.0
	전혀 그렇지 않다	254	64.6
	무응답	29	7.4
가족구성원이 침대나	자주 그렇다	7	1.8
요위에서 담배를	가끔 그렇다	31	7.9
피우는 경우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34	85.0
	무응답	21	5.3
아이를 안고 뜨거운	자주 그렇다	5	1.3
음식이나 차를 마신다	가끔 그렇다	88	22.4
	전혀 그렇지 않다	278	70.7
	무응답	22	5.6
취사시 그릇 손잡이를	자주 그렇다	217	55.2
손이 닿지 않게 한다	가끔 그렇다	88	22.4
	전혀 그렇지 않다	63	16.0
	무응답	24	6.1

〈표 3-2〉 계속

항 목	구 분	인수	백분율
취사시 아이를 부엌에	자주 그렇다	157	40.0
오지 못하게 한다	가끔 그렇다	155	39.4
	전혀 그렇지 않다	64	16.3
	무응답	17	4.3
가스사용후	자주 그렇다	294	74.8
가스밸브를 잠근다	가끔 그렇다	65	16.5
	전혀 그렇지 않다	27	6.9
	무응답	7	1.8
아이의 잠옷은	자주 그렇다	81	20.6
방염성 천을 고른다	가끔 그렇다	62	15.8
	전혀 그렇지 않다	208	52.9
	무응답	42	10.7
소화기의 수명연한과	자주 그렇다	35	8.9
작동여부를 수시확인	가끔 그렇다	40	10.2
	전혀 그렇지 않다	303	77.1
	무응답	15	3.8

3) 자녀에게 실시한 화상 사고 예방과 관련한 교육 정도

부모가 자녀에게 화상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실시한 교육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화재 발생시 연락 방법과 대피 방법 화상에 대한 응급 처치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험 유무를 조사하였다. 결과는〈표 3-3〉와 같다.

〈표 3-3〉 자녀에게 실시한 화상 사고 예방과 관련된 교육 정도 n=393

항 목	구 분	인수	백분율
화재가 났을 때 연락	예	190	48.4
방법을 가르쳤다	아니오	193	49.1
	무응답	10	2.5
화상을 입은 경우 응급	예	39	9.9
처치에 대해 설명했다	아니오	342	87.0
	무응답	12	3.1
화재 발생시 어떻게	예	60	15.3
대피할 것인지 가르쳤다	아니오	321	81.7
	무응답	12	3.0

화재시 연락방법은 49.1%가 가르치지 않았으며 화상시 응급처치법은 87%가, 화재발생시 대비 방법에 대하여는 81.7%가 자녀에게 교육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린이에게 화상사고시 대처방안을 거의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응급상황시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어머니 교육시 자녀에게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나 자녀와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여 화상사고의 심각성과 그 예방법, 사고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아이들도 알게 하여 아이들 스스로 화상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부모의 화상 사고 예방과 관련된 지식 정도

부모의 화상 사고 예방과 관련된 지식은 화염 발생시 대처 방법, 화상 사고시 응급 처치법, 화재 발생시 탈출 방법, 가정의 적절한 온수 온도에 대해서는 정답의 문항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결과는〈표 3-4〉과 같다.

〈표 3-4〉 부모의 화상 사고 예방과 관련된 지식 정도

n=393

항 목	구 분	인수	백분율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정 답	253	64.4
대처 방법	오 답	137	34.9
	무응답	3	0.7
화상을 입은 경우	정 답	236	60.0
응급 처치 방법	오 답	156	38.7
	무응답	1	0.3
화재 발생시	정 답	186	47.3
탈출 방법	오 답	197	50.1
	무응답	1	0.3
가정의 적절한	정 답	175	44.5
온수 온도	오 답	211	53.7
	무응답	7	1.8
소화기 사용 방법	안 다	226	57.5
	모른다	158	40.2
	무응답	9	2.3
집안에 연기 감지기	안 다	159	40.5
설치 위치	모른다	214	54.5
	무응답	20	5.0

부모의 화상 사고 예방과 관련된 지식정도에서 오답인 경우를 살펴보면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방법은 34.9%, 화상을 입은 경우 응급 처치 방법은 38.7%, 화재 발생시 탈출 방법은 50.1%, 가정의 적절한 온수 온도에 대하여는 53.7%, 소화 사용 방법은 40.2%, 집안에 연기 감지기 설치 위치는 54.5%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상사고를 당했을 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대처하여 오히려 시간이 지연되거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다하고 본다.

V. 논 의

최첨단의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산업사회에 사는 현대인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발생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지고 어린이 안전사고 90%이상이 가정, 유치원, 학교, 도로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발생률은 산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치와 비슷하나 다만 연령층이 낮다. 어린이 사고의 유형은 성장발달 단계적 특성이 있다(박, 1996).

어린이는 매우 호기심, 탐구심이 높으며 신체조절이 미숙하고 인지발달면에서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낮고 자신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없다. 외국에서는 안전교육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는 부모가, 유치원 및 학교는 교사가 철저히 시키고 있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지어졌다(박, 1993).

어린이 사고는 5세미만에서 가장 많은데 성인에 비해 같은 사고의 정도일지라도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어린이는 화상후 성인과는 달리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로 인한 신체, 정신적 고통이 크다. 화상 흉터는 현대의학 기술이 기계가 고도로 발달하였어도 상흔을 지우기가 힘들다. 흉터로 인한 신체상의 변화는 자존심 상실, 희망과 의욕이 없이 좌절감으로 일생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뜨거운 물에 의해 55.4%, 뜨거운 물체에 의해서는 31.5%로 부모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어린이의 화재,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교육으로 퀴즈를 이용한 화재, 화상 안전교육 실제활동을 위해 가정환경 그대로의 가상적 환경에서 화재, 화상 위험 등을 부모 수준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어린이 화상사고 유형과 어머니의 화상에 대한 예방, 태도, 지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다.

본 연구의 대상은 시내 5개 유치원을 선택하여 이 시

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어머니 393명중에서 화상사고 경험한 어머니는 92명이었다.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써 예비조사는 연구대상자 선정기준과 일치하는 영유아 부모 20명으로 하였다.

본래 연구도구는 영유아의 사고유형 실태 조사항목에서 화재, 화상 문항만을 발췌하였다. 자료수집은 1997년 5월 1일에서 5월 25일까지였다.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화상사고 유형과 원인은 뜨거운 물에 의해서 55.5%, 가열된 물건(다리미) 31.5%였다.
2. 화상사고 위험유발 물건 노출에서 '다리미 사용후'가 40.5%였다.
3. 부모의 화상사고 예방과 관련된 평소습관에서는 가스렌지에 불을 켠 상태에서 자리를 떠나는 경우 48.6%, 한개의 콘센트에 여러개 가전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72.2%, 어린이 잠옷 선택 시 방염천을 사용한다 36.4%이었다. 소화기 수명연한, 작동여부는 77.1%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4. 자녀에게 실시한 화상사고 예방과 관련된 교육정도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락방법을 가르친 것은 48.4%, 응급처치에 대한 질병은 9.9%, 화재 발생시 대피에 대해서는 15.3%였다.
5. 부모의 화상사고 예방과 관련된 지식 정도에서 정답을 한 경우 불이 붙었을 때 64.4%, 응급처치 60.0%, 화재시 탈출방법 47.3%, 가정의 적절한 온수 온도 44.5%, 소화기 사용법 57.5%, 집안에 연기 감지기 설치와 위치가 40.5%이였다.

Ⅶ.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화상사고 유형에 따른 교육, 화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화상사고 예방 습관, 화상사고시 응급처치법, 자녀 교육을 포함한 HIPP(Home Injury Prevention Program)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2. 유치원, 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대상 집단에서 화재나 화상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3. 유치원, 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화재나 화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구축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박덕규(1993). 철저한 안전교육 분명한 책임소재. 한국안전생활교육회, 안전과 건강 여름초 28-30.

박연홍(1996). 유아의 안전교육 지도방안, 안전사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미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5-40.

박정한, 배영숙(1988). 대구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소아사고 환아 사고원인. 예방의학지, 21(2), 224-237.

정재현, 최원진, 윤대원(1991). 화상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구급 의학회지, 6(1), 27-36.

한상훈, 김진환(1986). 서울대학교병원 화상치료실에 있어서의 임상적 고찰. 대한성형의사학회잡지, 13(4), 481-487.

한정석(1992). 병원 방문 상해 환자 유형별 분석과 사고유형별 분석과 사고 예방책을 위한 기초조사. 최신의학, 36(9), 85-95

한정석, 서미혜(1997). 어린이 화상사고의 실태와 예방대책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 36(4), 61-74.

한국 소비자 보호원 안전부(1993). 어린이 화상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의료보험 연합회 통계자료(1994).

Bernstein, N.R., O'connell, K., & Chedekel, D. (1992). Patterns of burn adjustment. Journal of Burn Care & Rehabilitation, 13(1), 4-12.

Dersheweitz, R.A. & Christopherson, E.R.(1984). Childhood household safety: An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Disabled Child, 138, 85-88.

Eadie, P.A., William, R., & Dickson, W.A.(1995). Thirty-five years of paediatric scalds: Are lessons being learned? British Journal of Plastic Surgery, 48, 103-105.

Glik, D., Kronenfeld, J., Jackson, K.(1991). Prediction of risk perception of childhood injury among parents of preschoolers. Health Education Quartely, 18(30), 285-298.

Gray, G.(1988). Burn injured children. Nursing Times, 21(3), 49-51.

Jay, K.M., Bartlette, R.H., Danet, R., & Alley, P. A.(1977). Burn epidemiology: A basis for prevention. Journal of Trauma, 17(12), 943-947.

Halperin, S., Bass, J.L., & Mehta, K.A.(1983). Knowledge of accident prevention among parents of young children in nine Massachusetts town. Public Health Reports, 98(6), 548-552.

Martinez, S.(1992). Ambulatory management of burns in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6(1), 32-37.

Thomas, K.A., Hassanein, R., & Christophersen, R.(1984). Evaluation of Group well-child care for improving burn prevention practice in the home. Pediatrics, 74(5), 879-882.

Whaley, L.F., & Wong, D.L.(1993). Essentials of Pediatric Nursing. 4th. The C.V. Mosby Company.

-Abstract-

Key concept : Burns in children, Mother's preventre attitude to and knowledge of burns

A survey of the Types of Burns in Children and Mother's Preventive Attitudes to, and Knowledge of Burns

Han, Jung Suk · Kim, Dong Hee***

Burns in children result in the loss of precious life, or if the child survives, in much suffering from physical, emotional,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ese burn accidents to children happen in the bustle of family life and frequently without any warning. With this background information,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ty types of burns in children and mothers' attitudes towards, and knowledge of burn prevention, in order, to not only, in still a safety consciousness regarding the seriousness of burn accidents and the strengthening prevention, but also as basic data towards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program aimed at prevention.

From May 1 to May 25 in 1997,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mothers of children attending five day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located in Seoul, which had been selected for the study. The tools used for the study, which we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surveyed the type of burns suffered by children, mothers' knowledge of burns and attitudes toward burn accidents.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real numbers percentages and analysis was done using SPSS computer program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most frequent type of burn accidents were those caused by hot water(55.4%) and these were frequently related to everyday habits that easily lead to danger. Further, the first aid treatment following a burn was weak. The majority of the mothers had not instructed their children on who to contact in the case of a fire, first aid for burns, or how to take escape in the case of a fire. This left the children in a defenseless position in case of a fire. The mothers showed a lack knowledge, on what to do when a blaze is discovered, how to put out a fire, first aid for burns, escaping from a fire and appropriate water temperature, in that 50% of the time they answered incorrectly.

From this study a prevention program, HIPP (Home Injury Prevention Program) could be developed that includes fire prevention habits and first aid for burns. This program can be used with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for group education on fire prevention and can be used as a foundation for construction of a system of facilities and equipment to prevent fires and also prevent injury from fires.

*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Nursing